

동국대

원샷톡



다소 진부하지만 명확하고 리스크가 적은 아이디어

학생의 높은モチベーション

CS 전공 학생인데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iOS가 제일 재밌다고 함

여유 있는 일정

핵심 기능이 어렵지 않다 보니 **검증에 시간 소요가 적음**

디자인 개선을 여러번 말 했는데 조금 다르게 받아들임... (테마 기능?)

깔끔했던 팀원 안배

1명이 월등히 잘하는 전형적인 팀이었지만 조원 모두 코딩에 적절히 참여하도록 내부적으로 독려가 잘 되고 동기부여도 잘 됨

핵심 기능이 일찍 구현이 되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음

동국대

POSE

사진을 찍을 때 포즈를 쉽게 잡을 수 있게 가이드 해주는 앱

비전공자 2명의 팀

구현이 어려워 보여 (?) 아무도 이 팀을 선택하려 하지 않았는데 우여 곡절 끝에 만들어짐

2명 모두 코딩을 전혀 모르고 맥이 없는 상황

아이디어 제안자는 초반에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서 맥도 사고 강의도 앞서서 들음

어려운 아이디어

카메라에 포즈(이미지 객체)를 올리고 리사이즈를 하는 기능과 앱 개발 커리큘럼 사이의 괴리가 큼

피봇을 여러번 설득했으나 동기부여가 높았던 만큼 완강하게 거부

‘이 앱을 만들지 못하면 나에게 이 수업은 의미가 없다’ 를 설득하는 기술의 필요성 ...